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1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두 차례 '굉'" 세척실서 폭발...5명 사망 · 2명 부상	사회	주요뉴스
2	"와!" 전국서 쏟아져 나와 '흥분'...780명 체포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오늘(1일)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사고 당시 상황과 지금까지 드러난 원인까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터진 듯 콘크리트 벽체와 엇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폭발 당시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건물 내외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두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A 씨/목격자 : 굉 소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 그 정도 했는데 두 번 계속 난 것 같아요. 수류탄이 이렇게 굉 소리 나듯이 그런 식으로.]

폭발음이 워낙 커 동시간대 119신고 30여 건이 빙발했습니다.

[B 씨/목격자 : 집 안에 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울리면서 '핑핑' 소리를 제가 두 번을 들었거든요. 지진 났을 때처럼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울렸어요.)]

폭발이 일어난 곳은 지상 1층 544제곱미터 규모 건물로 로켓 추진제, 즉 로켓 연료 제작에 쓰이는 도구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척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에서 작업 중이었던 근로자 7명 중 20대 비정규직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 1명이 전신 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오전 8시부터 방염복을 입은 채 공정에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재웅/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 :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약이 묻어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소방 당국은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를 구성해 유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정성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핵심: 오늘(1일) 오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로켓 연료 제작에 쓰이는 도구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척실에서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흥분한 일부 축구 팬들이 프랑스 거리 곳곳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무려 78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챔피언스 리그 2년 연속 우승이 확정되자, 흥분한 파리 생제르맹 축구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차량과 버스 정류장 위에 올라가고,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등 위협하자 경찰도 최루탄을 쏘며 제압했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만 약 2만 명이 모였는데, 일부가 방화와 기물파손, 상점 약탈을 저지르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져 780명이 체포됐고 경찰과 시민 등 2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랑 누네즈/프랑스 내무부 장관 : 상황은 대체로 통제됐습니다. (폭력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공질서 문란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도심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공권력이 체계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지난해 5월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 직후에도 폭력사태가 벌어져 500여 명이 체포되고 파리에서만 201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올해 결승전을 앞두고 병력 2만 2천 명을 배치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해 지난해 보다 다친 사람들과 체포자가 늘어났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체포된 자들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폭력 사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젠 끝입니다.]

프랑스 야당 정치인과 기초단체장 등은 '승리의 밤에 폭력 사태로 집에 갇혀 있는 나라는 프랑스뿐' 이라거나 '정부가 인파 통제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런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2년 연속 우승이 확정되자, 흥분한 일부 팬들이 거리로 나와 방화와 기물파손, 상점 약탈을 저지르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780여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과 시민 등 270여 명이 다쳤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카타고	미국 프로그래머 데이비드 우가 개발 주도한 오픈소스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2019년 2월 처음 공개됐다. 중국 베이징 선커과학기술유한회사의 '골라시'와 텐센트의 '절예(絶藝)'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력을 갖춘 모델이다. 카타고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라는 점이다. 소스코드와 인공지능경망 가중치 데이터가 공개돼 있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AIOps	인공지능(AI) 운영관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AI와 머신러닝(ML) 등 기술을 활용해 IT 운영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기술 및 접근 방식을 뜻한다. 다양한 IT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 예측,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기사: 이제는 '모두의 주거복지' 말할 때 [왜냐면]

요즘 가게 살림이 만만치 않다. 기름값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대출이 있는 가구는 이자 부담이 무겁고,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매달 주거비 걱정이 앞선다. 1980년대 초반 한국 경제가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시달렸다면, 지금 가게는 고월세까지 겹친 주거비 압박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월급은 더디게 오르는데 집값과 임대료는 빠르게 움직인다. 주거비가 가게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은 더 이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주거 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했고, 주거급여와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8%를 넘어섰고, 과거에 비해 제도적 기반도 크게 두터워졌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은 여전히 크다.**

기존 주거복지 제도는 대체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물론 공공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의 가구 형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소득은 기준보다 조금 많지만 자산은 거의 없는 청년이 있다. 맞벌이를 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안정적인 전세 보증금 마련조차 버거운 신혼부부가 있다. 은퇴를 앞두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월세와 관리비 부담은 커지는 중장년층도 있다.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일지 몰라도, 주택시장 안에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 이른바 '복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주거복지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의 본령으로서 더 두텁고 촘촘해져야 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사는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밀릴 수 없다. 다만 주거 불안이 더 넓은 계층으로 번지고 있다면, 주거복지의 시야도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 주거복지의 온기가 더 많은 국민에게 닿아야 한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형성, 출산, 돌봄, 일자리, 지역 사회 유지와 연결된 사회 전체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한채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새롭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와 건설·관리·서비스 수요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빈집, 빈 상가, 오래된 호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고쳐 활용하는 방식은 쇠퇴한 공간에 다시 사람의 흐름을 만들고, 지역 상권과 생활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효과도 낳는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본래적 기능 외에도 주거 상담, 돌봄 연계, 고령자 이동 지원, 창업 지원, 아이 돌봄, 건강·정서 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물리적 재고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주거복지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고월세 시대를 함께 건너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할 기초 생활 인프라로 바라보아야 한다. 주거복지의 가장 낮은 곳을 더 두텁게 하면서도, 그 온기가 제도 밖 경계선에서 시장 변동성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닿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소셜 인프라로 세우고, 주거 공익의 가치를 국민의 삶 속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제는 '모두의 주거복지'를 말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격전지' 늦은 새벽 승패 갈린다...길어진 개표	정치	주요뉴스
2	이미 568건 적발됐는데...대형 사고 못 막았다	사회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내일(3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개표 결과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초접전 지역의 경우, 늦은 새벽에야 승패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본투표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투표율은 아침 7시부터 1시간 단위로 집계되는데,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율 등도 포함된 전체 투표율 수치가 공개됩니다.

잠정 투표율은 밤 8시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 마감 이후 발표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

이번엔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도 주목됩니다.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되고, 첫 개표는 6시 20분쯤으로 예상됩니다.

첫 개표 결과는 저녁 7시 30분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심은 언제쯤 당락의 윤곽이 드러나느냐일 텐데, 우선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큰 지역은 자정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초박빙 접전 지역에선 새벽 서너 시는 돼야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의 평균 개표 시간은 약 7시간 40분이었는데, 이번에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2년 전 총선 때부터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지방선거에선 이번에 처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24시간 상시 공개하는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태약/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달 20일) : 주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전국 14개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개표는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지사 개표와 같이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보선 투표율은 개표 이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초접전 지역의 경우, 늦은 새벽에야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선 앞선 두 차례 폭발 사고로 5백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수백 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또다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추진연료 충전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86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운영 부실이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대거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결과 보고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 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도 붙이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 적정하지 못했고, 자체 감사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며 공정안전관리 등급을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뒤인 2019년 2월 또다시 폭발 사고가 나며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부의 두 번째 특별감독에선 법 위반 사항 82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등 안전관리 부실과 밀폐공간,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안전관리 등급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게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션/민주노총 부위원장 : 지난날 수백 건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음에도 개선은커녕 국가보안시설이라면서 안전관리 상황조차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업체 현황을 추려 별도로 보고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핵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선 앞선 두 차례 폭발 사고로 5백 건 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포괄적 주식교환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기 위해 자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신, 모회사 주식 또는 현금을 주는 것.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90%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을 결정할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바퀴벌레국민당	2026년 5월 인도 청년 아비짓 딥케가 창당한 풍자 가상 정당으로,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취업도 못 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돼 출범하였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3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당선 축하" 투표 전날 띄운 태백시청..."조직적 관권선거" 발각	정치	주요뉴스
2	'사전투표 반영' 17시 투표율 57.4%...4년 전보다 9.8%p 높아	사회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2일), 강원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자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는 오늘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청 내 전광판에는 "이상호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송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의 사진과 꽃다발이 그려진 화면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도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태백시 공무원이 SNS에 이상호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올린 일로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당은 "태백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기도 전 선거 결과를 예측해 전자현수막을 게시한 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태백시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성토했습니다.

강원도당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물들인 태백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백시는 해당 문구의 게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명확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 홍보 매체 운영 기준 점검과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2일), 강원 태백시청 내 전광판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는 전자현수막이 게시돼,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기사/뉴스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오늘(3일) 오후 5시 기준 57.4%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9.8p 높은 수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1시 투표율부터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한 수치로 공개합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3.6%로 가장 높고, 강원이 61.9%, 경남 60.9%, 전북 60.2%순입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59.1%, 경기 54.6%, 인천 54.6%, 대전 56.3%, 세종 58.6%, 충북 56.4% 충남 55.8%입니다.

부산의 투표율은 58.1%, 대구 59.9%, 경북 57.8%, 울산 59.9%입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51.5%, 제주 53.8% 입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데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오늘(3일) 오후 5시 기준 57.4%로 집계됐고,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9.8p 높은 수치였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마타도어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黑色宣傳)의 의미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bullfighter)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보궐선거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법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4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서울서 '5선' 고지...강남3구·한강벨트가 갈랐다	정치	주요뉴스
2	"일단 50명" 줄줄이 분통...뿔난 유권자 피해 '허둥지둥'	정치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시민들이 세워준 것"이란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자신이 부족했던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표심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당선인 :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으로 돌아가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해 첫 일정은 안전 대책 점검 회의였습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엔 전반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당선인 :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선 서울 성동구청장 출신으로 이른바 '명픽', '일 잘하는 행정가'를 내세웠던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체 25곳의 자치구 가운데 10곳에서 정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는데, 특히 오 후보의 역전극은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 영등포 등 '한강벨트'의 표심 덕이란 분석입니다.

전체 득표율에서 정 후보에 약 1%p 이긴 오 후보는 강남과 서초에선 각각 30%p 넘는 격차로 정 후보를 따돌렸고, 용산에선 16.87%p, 영등포에선 3.82%p 앞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등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라 부동산 표심의 반영 아니란 해석도 나옵니다.

'잠룡'으로 불려온 오 후보의 차기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서울 25곳 구청장 중 종로, 성동 등 17곳을 가져갔고,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81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되면서 오세훈 5기 시정은 우선 협치란 과제부터 풀어야 한단 관측입니다.

핵심: 오세훈 후보가 당선 후 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했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제(3일) 낮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감지됐습니다. 송파구 12곳, 강남구, 광진구까지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타난 건 오후 4시 반 무렵으로, 투표가 끝나야 하는 저녁 6시에도, 일부 투표소에선 긴 줄과 함께 대기표를 나눠주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투표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이 잇따랐고, 밤 10시에야 투표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관위가 엉망으로 대처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웠던 어제 상황을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5투표소 모습입니다. 투표 마감 이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투표함은 개표소로 향하지 못하고,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대기표를 받은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잠실2동 주민 : 2시간 기다리다가 아이 밥 먹이고 왔어요.]

[투표소 관계자 : 잠시만요, 네. 5투표소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여기 투표함 봉인하겠습니다.]

[서울 잠실2동 주민 : 아니, 여기서 매뉴얼을 어겨놓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에서만 14개 투표소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 잠실2동 주민 : 투표용지가 안 오면 모른다고 그렇게 책임 없이 그 말만 하면 어떡해!]

[서경희/서울 청담동 : (투표소 관계자가) '지금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투표하고 투표가 안 된다' 별일 아닌 것처럼...]

답답해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부의 지시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서울 문정동 주민 : 개판이에요,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종이봉투에 담아 가져왔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기표를 왜 이제야, 6시 지나서 나눠주시나요?) 유효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6시 이후에 하면?]

유권자들의 항의를 피해 허둥지둥 투표함을 들고 나온 관계자들이 투표함 이송차량마저 헛갈려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서울 잠실2동 투표소 관계자 : ((투표함 이송 차량이) 이거 맞아요?)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차량) 번호 모르는데.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결국 일부 투표소에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는 물론이고, 개표 상황이 중계 중인 밤 10시에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이수진/서울 잠실2동 : 이번에 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구의원 시의원 다 뽑는데 교육감까지, 한두명 뽑는 것도 아닌데...]

유권자들 사이에선 초등학교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원섭/서울 잠실4동 : 반장 선거만 해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넉넉한 투표용지를 다 배부하고 투표하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핵심: 투표가 끝나야 하는 저녁 6시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 일일 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긴급조정권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로,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컨피덴셜 컴퓨팅	클라우드 환경에서 연산 중인 데이터(In-use)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호하는 기술이다. TEE 기반 하드웨어 격리를 통해 운영체제나 관리자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금융·의료·AI 협업 등 고보안 산업에서 활용된다. Zero Trust 보안 모델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용지 부족' 오전에 알고도... '주먹구구' 대응만	정치	주요뉴스
2	"내가 진짜 유일 후보"...결국 무효표만 108만 표	정치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중앙선거위는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정황이 이미 투표 당일 오전에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 지연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까지 몇 시간이나 대응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보고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건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11시 40분경에 해당 송파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일단 대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두어 시경 후에 그때부터 불출이 이뤄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한 번에 충분한 수의 용지를 전달하지 못해 이후 추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투표용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상황은 심각했지만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인력 부족'과 '개표 준비'를 들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저희 위원회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소로 이동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선거인수가 아닌 50%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거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앙선거위는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부 체계의 조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 중앙선거위가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정황이 이미 투표 당일 오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개표도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만 108만 표에 달합니다. 투표장에 가고도 아예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투표한 경우들인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과 기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저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도 제약이 없다 보니, 단일 후보, 시민 후보, 유일 후보, 심지어 진짜 유일 후보를 표방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철안/40대 유권자 :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몇 장 안 되는 선거 공보물로 교육 공약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범수/70대 유권자 : 홍보물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비전을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표와 달리,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안 찍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기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30만 표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보다 다섯 배 넘게 많았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다, 비리와 파벌 다툼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색깔이 짙어진 만큼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정당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현재 교육감이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미 이견 시효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후퇴시킬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만 108만 표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시라트	이슬람에서 사람이 죽은 뒤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를 뜻하는 개념으로, 꾸란과 하디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흔히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다리'로 묘사되며, 선한 사람은 무사히 건너고 죄 많은 사람은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헬싱키 협정	냉전 시기 동서 진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적 합의로, 공식 명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CSCE Final Act)'이다. 협정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는데, 이를 외교가에서는 '세 개의 바구니(Three Baskets)'라고 불렀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